

Art

아트인컬처
September 2014

Special Feature /
광주비엔날레 20년
전시 인물 사건 하이라이트
이용우 인터뷰

Artist /
마류밍, 김종구

Memorial /
은 카와라, 날짜 여행자

New Vision /
2014 파이널리스트 선정

픽셀의 수사학

홍승혜展 7. 10~8. 17 국제갤러리

홍승혜 작가의 개인전 <회상>은 작가의 지난 전시를 반추한다.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의 6편의 전시가 마치 6개의 투명판을 겹친 것처럼 전시장에 포개져 있다. 부분적으로 이전 전시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각 요소의 새로운 대칭과 반응들, 질서와 무질서의 교차를 만들어 낸다. 전시는 과거를 물리적으로 재현하는 대신 경험적 재구성을 선택했다. 어떻게 전시의 경험을 다시 불러 올 것인가, 기억은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내포돼 있다. 작가는 기존 전시에 등장했던 작업을 반복하는 대신 그 형태와 구성물의 조합, 색 등을 조금씩 바꿔 새롭게 제작했다. 실크스크린은 잉크젯 프린트로, 서랍장 모양을 한 알루미늄 패널은 사용 가능한 목재 가구로 제작됐다. 벽과 기둥을 포함해 모든 색채는 흑백의 스펙트럼 안에서, 재현과 거리가 먼 새로운 실재를 만드는 것으로 전시는 기억의 어떤 상태를 시각적 형태로 응고한다. 작가가 1997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 <유기적 기하학>은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픽셀을 이용해 구축된 개별 작품이자 공간을 뜻한다. 여기서 픽셀의 형태는 확장되고, 방향을 전환하고, 반복, 복제되면서 살아 있는 세포처럼 증식된다. 모니터에서 발아된 픽셀들은 공간에서 배양된 후 점차 시간과 같은 비결정적 요소들과 결합해 하나의 환경을 이룬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 우주의 연속

그 정점이 전시장 2층에 설치된 <6성 리체르카레>다. <6성 리체르카레>에서 작가는 기존에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여섯 작품을 모두 흑백으로 전환한 후 공간 안에 배치했다. 개별 영상이 구분되기보다 전체 공간 안에서 각 요소가 서로 반응하는 하나의 작품을 이룬다. 화면 안의 단순한 사각형들은 각기 다른 리듬과 운동감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지시하지는 않지만 그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만으로도 숨을 고르거나, 서로 만나거나, 가만히 기다리거나, 충을 주는 것과 같은 의인화된 서사를 연상할 수 있다. 각각의 영상은 또한 각기 다른 길이의 음악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들리면서 매년 새로운 조합의 연주가 공간에 울린다. 모든 음악이 기타 또는 건반악기로 이뤄진 단정한 선율들이라 여럿이 겹쳐도 혼란스럽지 않다. 공기가 가라앉으면 각각의 음악이 개별적 목소리로 떠오르는 순간이 있고, 반복적인 멜로디의 연속이 약간의 긴장감과 다성의 대위를 이루면서 나른하고 환영적인 기분을 전달하기도 한다.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의 연속, 리체르카레의 공간은 6개의 행성이 각각의 시간으로 궤도를 그리고 있는 우주 속 같다.

무한 연장의 시간성에 대한 암시는 작가의 조형적 방법론에서는 물론 작품의 제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조금씩 변주된 다른 형태의 작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유기적 기하학>이나 <드로잉> 등은 개별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고 일련의 작품을 총칭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각 작업은 에디션(edition)이 아닌 바리에이션(variation)이다.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처럼, 개별 작업들은 총합의 부분이면서 동시에 다음 작업으로 이어져 가는 생성의 형태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예고한다. 이렇게 작가의 시각적 구성은 시간과 경험의 어떤 특성과 연결돼 있다. 벽에 뚫린 2개의 원형 구멍과 같은 돌발적 사건의 장치가 내부 공간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한눈에 보기엔 단정하게 질서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 길이 있다. 간결하면서 여러 뜻을 내포한 문장. 하나의 의미로 선불리 완결하지 않으면서도 장황한 수사로 길을 잃지 않는 문장. 이 전시를 문장으로 쓴다면 딱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 같다. 고정된 사물들, 액자 속 단정한 이미지들만이 보인다면, 눈의 초점을 좀 더 풀고 변형의 리듬에 주파수를 맞추는 필요가 있다. 그 안에 생성되는 형태들의 춤이 보인다.

/ 김 해 주

홍승혜 <회상>전 전경_ 작가는 그동안 열린 개인전의 제목과 작품 제작의 방법론을 종합했다.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Over the Layers),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Debr),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On & Off),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Musical Offering), 끊임없는 프레임에 갇힌 채 왔던(All about Frames) 과거의 작업을, 형태와 소재를 변형해 새로운 작품으로 제작했다.

